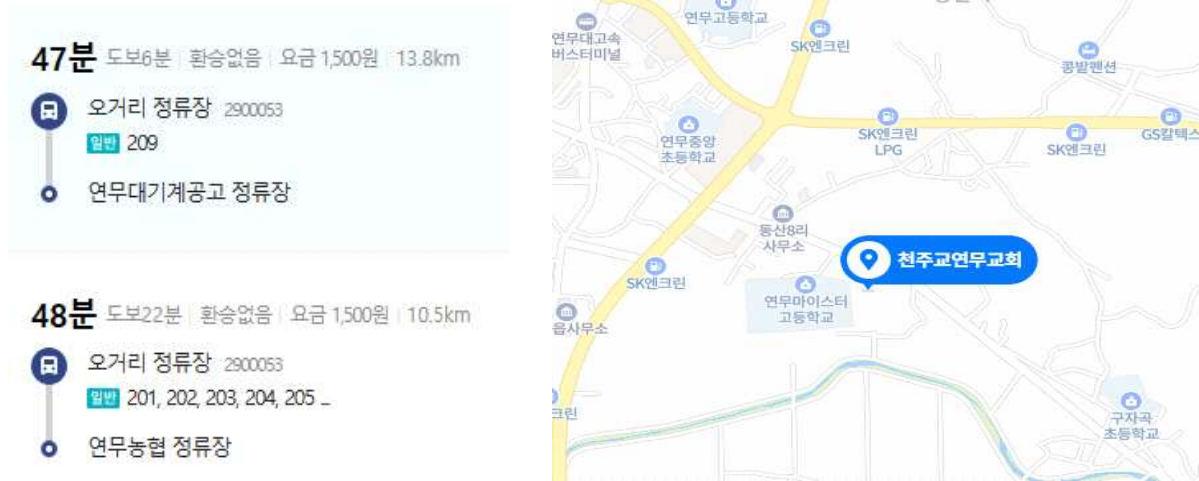


연무 성당

주소 : 논산시 연무읍 연무로 274-7

1958. 논산성당에서 분가

찾아가는 길(논산 오거리 정류장 209번 버스 -> 연무대기계공고정류장)



현재 연무 성당의 사제관은 설립자께서 1958년 논산 성당에 계실 때에 지으신 건물이다.

6·25전쟁 이후 1951년에 이곳에 육군훈련소(논산훈련소)가 들어서자 피난민 교우들이 생계를 위해 훈련소 주변으로 이동하여 주로 마산리 시장 주변에 거주하게 되면서 교우들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 성당은 초기에 ‘마산리’라고 불리어졌고, 1963년부터는 ‘연무대’, 1973년부터는 ‘연무’로 개칭되어 불리어졌다.

설립자 신부님께서 실제 사신 곳은 아니지만 성 신부님께서 당시 1층은 성당으로, 2층은 사제관으로 신축하셨던 형태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현재도 사제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 정보 :

본당 부지선정에서부터 여러 가지로 마음을 많이 쓴 본당으로, 연무본당 분가 당시 성제덕 신부는 ‘마치 딸을 시집보낸 것 같다’고 표현함 -옛 사제관의 흔적은 남아있으나 새 사제관 신축 후 현재 비어있음. 구 사제관의 2층은 연무본당 초기에 성당으로 썼던 곳



(현재 성당 외부)



(성당 사제관 건축당시)

독서 자료

서한 1958. 10. 4 논산에서

나는 조만간에 공소방문을 떠나야 하고 공소는 30여 곳이 되는데 보좌 신부가 아직도 한국말을 못하니 거의 나 혼자 공소 일을 치러야 할 것이다. 게다가 다음 주엔 새로 지은 사제관을 축성해 주시러 오신단다. 사제관 1층은 임시 성당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 건물은 앞으로 군부대 옆에 있는 본당이 될 것이며 성베드로관이라고 칭했다. 주교님께서 사제 한 명을 발령 내어 주신다면 나는 그 사제에게 공소 몇 군데와 1000여 명의 교우들을 넘겨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의 일이 좀 덜어지겠지.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는 30여 명의 아이들의 장엄한 첫영성체가 있었다. (서한집 제 2집, 215쪽)

1958년 내내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정치적 음모와 학생들의 파업, 경찰의 개입 등으로 학업 자체에 큰 피해를 가져다주었다. 도저히 풀리지 않는 이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교사진을 해고해야만 했다. 모두들의 생각처럼 재출발과 질서를 복원하는 것은 창설자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그 모든 일을 태연하게 받아들이면서 그의 사도직을 높은 차원에서 지켜나갔다. 그의 관할 구역에 3개 공소를 추가하고 당시에 들어선 군부대 바로 옆에 대성당을 건립하였고, 그의 본당 구역 내에 60,000명의 군인들을 수용하는 그 부대로 말미암아 군인 가족들을 비롯하여 100,000명이 넘는 주민이 증가되었다. 이 부가된 부담으로 5년 전부터 연기해오던 결정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되었으니 너무 커져버린 그의 본당을 분할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것은 그가 그의 일을 전가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의 관할 구역을 좀더 축소시킴으로써 보다 큰 정성으로 교우들을 돌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의 변천에 따라 새로운 경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교회에 더 많은 신입 교우들을 영입할 수 있으리라는 그의 생각 때문이었다. 그의 결정은 1959년에 마산 성당(공소)의 설정과 함께 실현되어 그의 본당 교우의 1/4에 해당하는 약 1,000명의 교우가 분리되어 나갔고 나머지 18개의 공소를 젊은 피에르 로페페 신부의 유능한 도움으로 관리해 나갔다. 5월에 새 성당 건물들이 착공되었고, 개종에 대한 열의 또한 그에 못지 않았으나 물론 전년도에 기록에는 미치지 못한 채 192명을 수확했다. (성재덕 신부 제2집, 23쪽)

1958년(1054쪽)

(9월 23일부터 10월 10일까지 라리보 주교는 대전 교구를 순방하셨습니다 ...) 생제 신부는 논산 부대에 인접한 새 공소, 마산에 2층 건물을 막 완공하셨습니다. 1층은 사제관으로 2층은 임시 성당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곳의 교우 수가 1,000명을 넘을 경우 본당으로 승격되고 새로운 본당 신부를 맞아 생제 신부의 30여 공소 중 몇 곳을 떠맡아 생제 신부의 일을 덜어줄 것입니다. (성재덕 신부 제2집, 54쪽)

서한 1959.01.09. 논산에서

1958년 한 해 동안 저는 특별히 두 가지 굵직한 일을 잘 끝마쳤습니다. 그 일부는 여러분에게 감사를 돌립니다. 우선 본당이 분할되었습니다. 저 혼자로서는 본당이 참으로 너무나 벅찼습니다. 왜냐하면 본당의 주 업무 외에도 30개의 공소와 두 학교를 맡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2년 전에 군부대 근처에 주민들이 밀집해 있는 곳에 넓은 부지를 매입해 두었습니다. 작년에 드디어 붉은 벽돌의 멋진 사제관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주교님께서 가난하시면서도 저를 도와주셨고 교우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도와주셨습니다... 1층은 벌써 발령 받은 한국 신부의 사제관으로 사용되고 2층은 임시 성당으로 사용됩니다. 이 신부는 현장에 있는 만큼 성당 건축 공사를 감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성인께서 이 새 성당의 주보성인이시니 성인께서 잘 돌보아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딸” 하나를 시집보냈습니다. 휴우!